

사계절 무한대의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선사합니다.

**임핑 나이스터 컨트리 클럽**

- 광주 - 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드 산동 (명절 특별행) IC 영수증 무료(제기)
- 인천시 9월 이후 특별요청정선제 실시
- 예약 : www.hpdyndashy.co.kr 0801-320-7700

## ■ 허정무호 내달 19일 사우디전 앞두고 '행복한 고민'

# 누굴 뽑을까?

### '부상 회복' 염기훈 1순위 뽑힐 듯 해외파 박주영·김두현 합류 기대 징계 해제 이동국·이운재도 대상

‘누굴 뽑아야 하나?’ 축구대표팀 사령탑 허정무 감독이 다음 달 19일 열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3차전 사우디 아라비아와 원정경기를 앞두고 팀 구성에 고민거리가 생겼다.

지난 15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최종예선 2차전 직전 중앙 수비수인 김진규와 김치곤(이상 서울), 이정수(수원)가 부상으로 낙마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달리 최근 대표팀에서 빠졌던 주전급 선수들이 부상 회복과 징계 해제 등으로 재합류를 기대하고 있어서다. 감독으로서 행복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원발 스페셜리스트' 염기훈(울산)의 부활이다. 지난 2월 동아시아선수권대회 북한, 일본전에서 잇따라 골을 넣어 우승에 앞장섰던 염기훈은 4월 왼쪽 발등뼈 파열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올라 지루한 재활의 시간을 보냈다. 5개월 공백을 겪고 지난달 20일 성남전에서 복귀전을 치른 염기훈은 19일 인천과 경기에서 후반 43분 프리킥으로 시즌 첫 골을 신고했다. 허정무호 재출전 기대를 높인 것이다.

UAE와 최종예선 2차전 4-1 대승 때 주장 완장을 찬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왼쪽 측면 미드필더를 맡아 1골 1도움을 올린 게 마음에 걸리지만 허정무 감독의 선택에 따라서는 포지션 변경을 통한 '염기훈 활용법'이 나올 수 있어 기대해볼 만하다.

프랑스무대에 안착한 박주영(AS 모나코)과 최근 두 경기 득점포를 가동하는 빼어난 골 감각을 뽐낸 이동국(성남)도 감독의 고려 대상이다. 종전 대표팀 공격수 중 A매치 두 경기 연속 두 골을 수확한 이근호(대구)와 고공 플레이에 능한 장신(190cm) 스트라이커 정성훈(부산)은 사우디 원정에서도 허정무호에 계속 남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박주영과 이동국은 최근 훈련 중 오른쪽 허벅지를 다쳐 최소 2주 정도 재활이 불가피해진 신영록(수원)이 빠지면 그 자리를 다룰 공산이 크다. 박주영은 프랑스리그 데뷔전이었던 지난달 14일 로리안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한 이후 다섯 경기 연속 골맛을 못 봤지만 주전 자리를 굳히며 자신감을 얻은 게 장점이다. 또 지난해 아시안컵 음주 파문에 휘말려 1년 출전금지 징계를 받았던 이동국도 11월 2일로 족쇄가 풀려 대표팀에서 뛰는데 걸림돌이 없

다. 이동국과 함께 징계가 해제되는 '거미손' 골키퍼 이운재(수원)의 대표팀 복귀 여부도 관심거리다. 허정무 감독은 지난 6월 월드컵 3차 예선 3차전이었던 요르단과 홈경기에서 2-2로 비긴 뒤 '이운재 사면 카드'를 꺼냈다가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뜻을 접었다. 징계가 풀림에 따라 허 감독이 자연스럽게 이운재를 뽑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운재는 지난 8일 포항과 컵대회 4강 승부차기 때 눈부신 선방으로 소속팀 결승행에 앞장서며 건재를 과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미들즈브러전에서 축구와 스테이지가 잔디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 내측 인대가 손상됐던 김두현(웨스트브롬)은 빠른 회복을 보여 사우디 원정 합류를 기대하고 있다.

대표팀은 11월 11일 출국해 사흘 뒤 카타르와 평가전을 치르고 19일 사우디와 월드컵 최종예선 3차전을 벌인다.



◀ 허정무 감독



◀ 염기훈

## ■ 전남 드래곤즈 내일 수원과 컵대회 결승



◀ 광태휘·슈바

# “우리가 저격수”

### 수원, 주전들 부상 허덕 전남, 우승 절호의 기회

‘단기전의 강자’ 전남 드래곤즈가 22일 K-리그 정규리그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수원 삼성과의 컵대회 우승컵을 놓고 한 판 승부를 펼친다.

전남은 22일 오후 7시30분 수원월드컵경기장을 찾아 2005년 대회 우승팀 수원과 하우젠컵 2008 결승전을 치른다.

역대 전적은 11승12무20패.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도 수원에 0-2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 등 객관적 전력에서는 열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남은 단기전에서 강한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지난 2006년 FA컵 결승에서 2-0으로 수원을 제압했던 전남은 최근 리그컵 포함 4연승 행진을 하며 만만치 않은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FA컵 우승팀 전남은 시즌 초반 광태휘·고기구·슈바 등 주전선수들의 줄부상으로 힘겨운 힘겨운 행보를 하면서 FA컵 3연패의 기회도 놓쳤고, 정규리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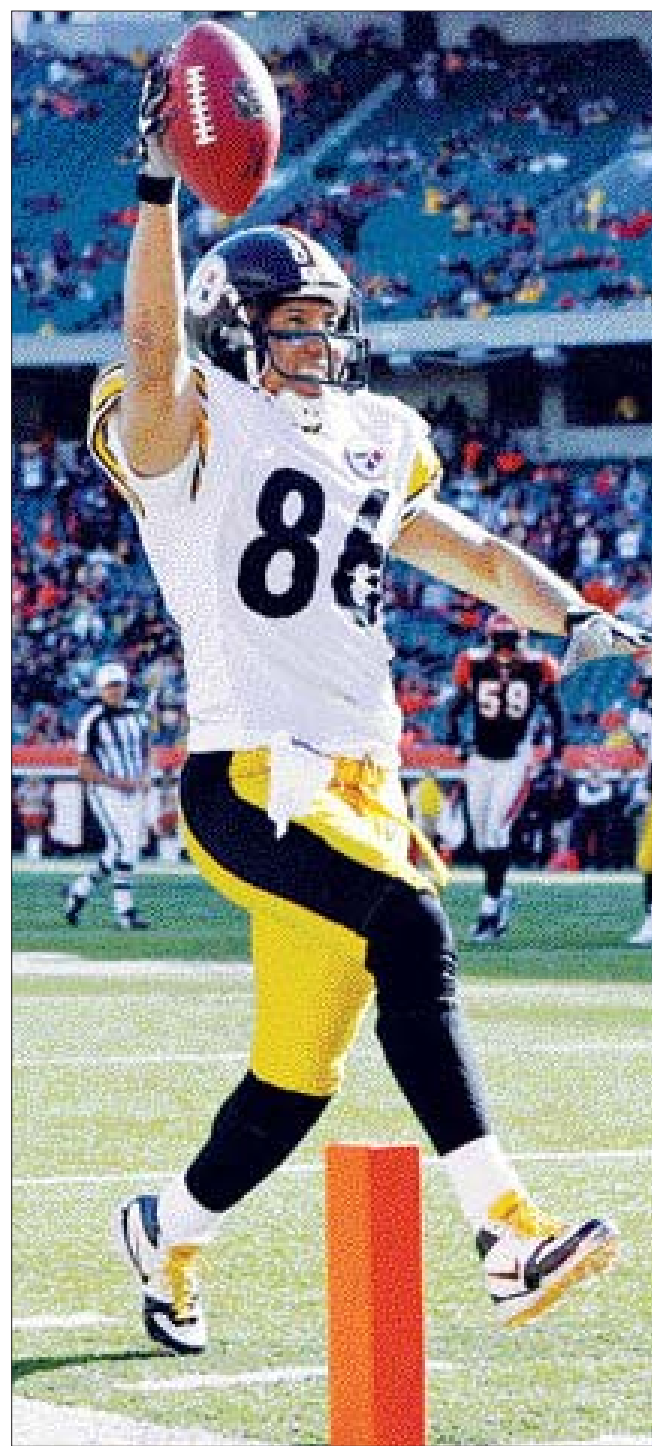
2골을 몰아넣으며 팀의 결승행을 견인했고, 지난 15일 아랍에미리트와의 월드컵 최종예선에서도 1골을 더하면서 '골 넣는 수비수'의 명성을 과시했다.

‘부상병동’ 수원의 상황에 전남에 힘을 실어준다.

스타군단 수원은 시즌 초 정규리그에서 18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펼치며 명문팀의 위용을 과시했지만, 7월 서울에 첫 패배를 기록한 이후 한 풀 기세가 꺾였다. 20일 현재 15승2무5패 승점 47, 골득실 +18로 1위 자리를 ‘전적’ 성남(승점 27, 골득실 +25)에 내준 수원은 부상의 악재까지 겹쳤다.

지난 6월 전남전에 출전해 1골 1도움의 맹활약을 펼쳤던 스트라이커 신영록이 허벅지 근육부상으로 이번 결승전에 나서지 못하는 데다 이천수, 이정수, 하태균, 백지훈 등도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하인스 워드 통산 70호 터치다운

미국프로풋볼(NFL)에서 활약 중인 한국계 하인스 워드(32·피츠버그 스틸러스)가 터치다운 1개를 보태 개인 통산 70호 터치다운을 기록했다. <사진>

와이드 리시버 워드는 20일(한국시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폴브라운 스타디움에서 계속된 정규 시즌 7주차 신시내티 벵갈스와 방동 경기에서 4번의 패스를 받아 60야드를 전진하며 터치다운도 찍어 팀 승리(38-10)에 힘을 보탰다.

워드는 31-10으로 앞서던 4쿼터 종료 1분 54초를 남겨 두고 바리언 레프트위치의 16야드짜리 패스를 받아 터치다운을 기록, 패기를 박았다. 피츠버그는 5승1패로 아메리칸 콘퍼런스 북부지구 1위를 지켰다. 지난 6일 잭슨빌 재규어스에서 결승 터치다운을 찍었던 워드는 올 시즌 6경기에서 5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며 2002년 세웠던 자신의 한 시즌 최다 터치다운(12개) 경신을 향해 순항 중이다.

/연합뉴스

## 탬파베이 첫 월드시리즈행



미국 프로야구 탬파베이 레이스가 '골짜기 돌풍'을 일으키며 전통의 명가 보스턴 레드삭스를 꺾고 창단 처음으로 월드시리즈에 진출했다.

탬파베이는 20일(이하 한국시간) 세인트피터즈버그 트로피 카나필드에서 열린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 7차전에서 선발 및 가자의 빛나는 투구속에 보스턴을 3-1로 제압, 4승3패로 아메리칸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1998년부터 리그에 참가한 탬파베이는 창단 이후 처음 나선 포스트시즌에서 월드시리즈까지 올라가는 기적을 일궜다.

탬파베이 선발투수 가자가 보스턴 강타선을 완벽히 잠재운 가운데 탬파베이 타선의 집중력이 빛났다.

가자는 1회 1사 뒤 더스틴 페드리아에게 솔로 홈런을 맞은 뒤 7회초 제이슨 베이에게 좌전 안타를 맞을 때까지 21명의 타자를 맞아 안타 하나 없이 사사구 4개만을 내주는 완벽한 투구를 펼쳤다.

탬파베이는 23일부터 내셔널리그 우승팀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7전4선승제 승부를 벌인다.

/연합뉴스

## KIA 남해서 마무리 캠프

KIA 타이거즈가 20일 경남 남해에 마무리 캠프를 차렸다. 조병현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13명과 선수 42명으로 구성된 KIA 선수단은 남해 스포츠파크에서 내달 30일까지 마무리 훈련을 실시한다.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마무리 캠프에서는 기초체력 및 기술훈련을 병행하게 되며, 현재 온천훈련중인 윤석민 등 투수들은 오는 28일 남해 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다.

KIA 선수단은 남해 캠프를 마치고 12월부터는 자율 훈련을 하고 이후 동계 합동훈련을 시작할 계획이다. 남해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재할군은 무등경기장에서 훈련을 갖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 강동우-한화 신종길 맞트레이드

KIA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가 20일 외야수 강동우(34)와 내야수 신종길(25)을 맞트레이드했다.

한화에서 KIA로 유니폼을 갈아입게 된 신종길은 광주 대성초-무등중-광주일고를 졸업한 뒤 지난 2002년 2차 6번으로 롯데에 입단했으며, 2004년에 한화로 이적했다. 1군 통산 89경기 출전한 신종길은 174타수 43안타로 0.247의 타율을 기록했으며, 올 시즌 2군에서 60타수 18안타 타율 0.300을 기록했다.

지난 11월 두산에서 KIA로 이적했던 강동우는 올 시즌 45경기 출장에 40타수 4안타 타율 0.100을 기록했다. 1군 통산 성적은 2,971타수 791안타 타율 0.266이다.

내야 보강을 고심해온 KIA와 외야 보강이 필요한 한화는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 전력 강화를 꾀하게 됐다. KIA는 신종길을 내야 백업 요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장성호에 조정 경기장 만든다

호남권 유일의 조정 전용 경기장이 장성호에 조성된다.

장성군은 11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30만㎡의 경기장 시설과 부대시설이 있는 장성호 조정경기장을 이달 말께 준공할 예정이다.

군은 또 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2월말

까지 관공사와 접안시설을 건립하고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장에는 본부와 임원실, 방송실, 체력단련실, 샤워장, 식당 등 편의시설을 갖춘 현대적 건물도 들어서게 된다.

조정경기장이 건립되면 비건이 종목인 조정경기 선수들의 훈련 환경 개선은 물론

## 사업비 11억 3천만원 들어 30만㎡ 규모... 이달 말 준공

론 선수 육성과 마니아층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장성호 조정경기장은 호남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은데다 풍광이 아름답고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바람과 파도가 없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장성=장영욱기자 bungy@kwangju.co.kr

장성=장영욱기자 bungy@kwangju.co.kr